

t h e  
f i r s t  
chapter



# 함께 가자! 정부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복지, 일자리, 교통, 교육...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당신이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당신의 마을을 당신 손으로

직접 문화마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직접 만들어가는 일.

이제 모든 일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당신 머리에서 나오고,

당신 손끝에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 생생한 영상정보 내 손안에 있소이다!

시 간부회의 내용을 생중계한다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부3.0이지요.



## 행정의 블라인드를 벗기는 여수시 영상정보 서비스

전라남도 여수시 · 서정수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정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슬로건으로 여수시의 준비된 창조행정이 급부상하고 있다. 간부회의 등을 전국 최초로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각종 영상자료를 제공, 개방 ·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쉽게 시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김 통장, 시청 간부회의 봤어?”

“간부회의? 여기가 시청도 아닌데 어디서 간부회의를 본다고?”

“아직 몰랐어? 시에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로 간부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어. 김 통장, 스마트폰 있지?”

“응... 그럼 먼저 마켓에 가서 여수시 통합 앱 다운받고, 실행, 그다음 LIVE · VOD 클릭”

조금 지난 후 시청 간부회의 장면이 실행된다.

“와~ 이게 지금 시청에서 있는 간부회의 맞지?”

“그럼.”

“이번 달에 우리 동네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네.”

“참 유용한 정보가 많군. 매주 봐야겠어. 이 통장 고마워”

김 통장과 이 통장은 간부회의를 본 후 시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자료 접근성이 높아져 행정의 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여수시가 간부회의를 공개했다. 그것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또한 시정뉴스, 행사나 교육 등도 모바일로 생중계하고 있다.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간부회의장이 되고 문화행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뉴스, 간부회의, 각종 교육 등을 보고 시정방향을



모바일 생중계 시청

알게 됐다. 몸이 불편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문화행사 등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행정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자동문처럼 행정정보가 열리니 행정기관의 벽이 그만큼 낮아지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보를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들은 행정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적·경제적으로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바로 알 수 있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변화를 맞고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 동시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간부회의, 정례조회, 아카데미 교육 등 그동안 밀폐된 공간의 회의와 현장에 가야만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PC만 있으면 시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의 혁명이자 정부3.0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생정보 영상 유비쿼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14년간의 영상자료 DB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제 목만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자체홍보 멀티방송을 운영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대형전광판 홍보와 각종 행사를 현지 생중계한다. 끝으로 모바일과 인터넷(시 홈페이지)을 통한 동시 생중계도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이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좋은 일과 큰일에는 항상 우여곡절이 있는 법이다. 생생정보 영상 유비쿼터스가 실현되기까지 장애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았다.

첫째, 장비구매 예산확보와 영상실 공간확보가 문제였다.

영상분야는 생소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하지 못한 분야다. 방송국에서나 있을 법한 1억 원이 넘는 첨단 영상장비 구매비용에 대해 시 간부와 시의회 의원들의 벽을 단번에 넘기란 바위에 계란치기였다. 3~4년간에 걸쳐 포기하지 않고 설득과 설득을 거듭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2010년 마침내 장비확보의 길이 열렸다. 시대적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의원들을 설득하고 지금의 ‘생생정보 영상 유비쿼터스’를 있게 했다.

둘째, 비주얼 영상 생중계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반발이었다.

간부회의가 매주 열릴 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대한 의식과 회의 공개는 그동안 생중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간부공무원에게 당연한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시류에 앞서야 살고 이제는 회의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다.

셋째, 모바일 생중계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홍보가 문제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시대적으로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임은 틀림없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실용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고지를 앞두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언론방송을 설득하여 홍보를 활성화하고 시정소식지와 시정뉴스, 유인물 등의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에 심혈을 기울



여 결국 상시 활용도를 높이고 열린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아낸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지방행정도 생존경쟁을 해야 하고, 창조행정을 추구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높아진 대외적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 욕구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행복시대를 만들어가며,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창조행정과 차별화된 전략을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 주민, 예술가, 행정이 함께 달동네 피난촌을 활기찬 문화마을로 되살리다

‘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꿈을 위해 변신 중인

감천문화마을을 아세요?

이곳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니에요. 빈집도 단순한 빈집이 아니에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갤러리에서 전시품을 둘러보세요.



## “재생이 곧 경쟁력” 민·관·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감천문화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 박현희



### 주민기자 기고글

“지난 5월 말 그땐 집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하나가 나에게 큰 선물이 될 줄 미처 몰랐다. ‘감천문화마을 주민기자단 모집’.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나는 우리 마을 신문기자가 되어보기로 했다.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외활동을 해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내 마음도 ‘지원해볼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어렸을 때부터 감천에 살았지만 마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아주 낮은 편이었다. 이런 내가 ‘우리 마을을 취재하고 주민 간 소통을 돕는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나의 어리석었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의 개인적인 능력과 관심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둘 많은 사람의 능력과 결과물이 모여 결국 감천문화마을신문 창간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나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듯이 주민의 작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마을을 더디지만, 천천히 바뀌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마을은 지금 방문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살아 숨 쉬는 문화마을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마을신문이 창간될 수 있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사진 해상도가 낮습니다.  
다시 올려 주세요.

즐겁고 행복한 '감천문화마을'  
마을소식은 우리 손으로 전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방문객의 발길이 넘쳐나는 '감천문화마을'로 변모해 가는 시발점으로 감천문화마을신문이 창간됐다. 윗글은 마을발전을 향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일어날 즈음인 2012년 8월 창간호에 한 주민기가 작가 기고한 글이다.

감천2동은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종교단체인 태극도 신도들이 판잣집을 지어 이주하면서 '태극도 마을'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마을은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의 산비탈면에 앞집이 뒷집의 햇빛을 가리지 않게 계단식으로 형성됐다. 10여 년 전에는 3만여 명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노후한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으로 인해 1만여 명으로 인구가 감소했고, 폐공가도 200여 채가 넘으며, 공동화장실과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아직 많을 정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비탈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뒷집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건축과 가로형 골목길 덕에 거주민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다. 근대적 생활환경에 대한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마을

은 '생활환경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지역 문화를 담은 고유의 전통적 가로경관은 역사의 증인이자 문화적인 안식처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주택 자체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지만, 그것들이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경치가 개성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규칙적으로 밀집하여 가로축을 형성하며 만들어낸 골목길은 열린 공간이며 소통의 장소가 되어 생활의 장이 됐다.

이렇듯 마을은 낙후된 환경 대신 마을이 가진 경관자원과 주민생활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를 지향하면서 달동네에서 '문화마을'로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마을주민과 구청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예술가,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함께 '감천문화마을운영협의회'를 결성하여 서로 소통을 통해 문화마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보존과 재생'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가미한 생활 친화적인 마을로 조성하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질서정연하고 역동적인 색상의 주택경관이 가지는 외형적 이미지와 마을주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특성을 살린 마을 브랜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내고, 감천문화마을만이 가지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마을 곳곳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하여 사진갤러리, 북카페는 물론 조형작품을 주민과 함께 설치하여 마을의 공간적 구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계단식 산복



도로에 산재한 빈집 300여 채 중 바다와 연계된 조망이 좋은 위치의 빈집을 활용하여 예술창작품 및 작품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쇄된 공중화장실이 있던 공터는 마을 어르신들과 작가의 손길로, 주민들이 모여 운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마당으로 변신시켰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던 마을 내 대형 공중목욕탕은 문화가 흐르는 휴식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어 <갤러리>, <카페>, <체험공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향유 거점공간이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로 마을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문화소통 장이 되고 있다. 마을계획가와 예술인,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조적 소통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후한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구청과 마을 공동체가 힘을 합쳐 노후주택을 그리운 나의 집(Home my home)으로 재탄생시켰다.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내에 마을 기업 사업단과 홍보단, 그리고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주민주도의 사업단을 꾸려 마을의 자립능력 또한 높였다. 마을 카페와 맛집, 그리고 주민·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



사진 해상도가 낮습니다.  
다시 올려 주세요.

익금을 다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적 마을자립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여건과 수익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마을에 상주 작가를 유치하여 마을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화상품의 질을 업그레이드했다. 마을 소식을 정겹게 담아내는 25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자단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하고 기록하는가 하면, 주말이면 어김없이 마을 입구에 멋스러운 모자와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자원봉사단 단원이 마을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소속 마을 해설사가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방문객에게 생동감 있는 해설을 해줌으로써 주민에게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방문객에게는 더 없는 친근함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처럼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천문화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또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내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이제 축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유의 지역색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다양한 이색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해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2013년 6월 ‘제3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는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관광객 10만 명이 방문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다녀간 누적관광객은 24만 명으로 이제는 변두리 달동네에서 사람이 몰려오는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르몽드지와 CNN 등 외국의 저명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쇄도하고, 국내외 저명인사의 방문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 달동네를 문화마을로 재생시킨 사례를 배우기 위해 국내외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고, 타 시도 예술인 등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20여 개의 점포가 새로 생겨나 자발적인 마을 상인회가 결성되는 등 마을의 활기도 어느 때보다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전문가, 마을계획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 마을의 발전모델과 발전방향에 대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손꼽히게 된 것은 아마도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인식하고 사업을 제안, 실천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획일적인 관 주도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자원과 환경적인 가치를 그대로 살려 창조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발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을 감천문화마을을 통해 새롭게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밝게 웃는 주민들이 마을발전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말처럼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은 이미 마을과 함께 생사고락의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 공공정보는 시민 손으로... 참여·공감·소통 통해 정책으로 되돌아오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런던데리(Londonderry)를 아시나요?  
이곳은 변함없이 원탁회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마을 일을 시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서죠.  
시흥시도 '시흥100년 시흥시민 원탁회의'를 통해 내일의 나침반을  
만들었습니다.



## 시흥시민 원탁회의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

경기도 시흥시 · 이명기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다. 시민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 바로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큰 매력이다.”

— 런던데리 원탁회의 의장 폴 디마르코 인터뷰 중 —

원탁회의는 ‘정책결정권을 그 지역 시민들이 직접 가지는 시민참여의 한 형태’다. 시흥시는 ‘2013년 시흥100년의 해’를 맞아 앞으로의 미래 시흥100년이 나갈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고자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시흥시는 하나의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생활 환경적으로 북부권 · 중부권 · 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시민들이 직접 진단하여 미래 시흥100년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 ‘권역별 생활밀착형 맞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권역별로 총 3차례의 원탁회의를 기획했다.

## 토론진행과정



시흥시민 원탁회의는 그 출발부터 달랐다.

일반적으로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은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제를 선정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up method)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각 2회씩 총 6회의 경청워크숍을 개최하고, 시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시민단체관계자, 지역전문가, 활동가 및 시흥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과연 시흥시민들은 시흥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시흥의 발전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들의 이야기는 ‘단어’별로 그리고 ‘중심 주제’별로 구분해 종합적인 분석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인 의견들을 종합하여 시흥의 시민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선정했으며, 토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꼼꼼히 확인하는 수렴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논의할 의제는 권역별로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권역별 의제 하나와 시흥의 미래를 모두가 같이 논의하는 공통 의제 하나를 선정했다.

권역별 원탁회의는 한 번에 300명, 즉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토론 무대였다. 따라서 주인공 또한 시민이었다.

시흥시는 참여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활발한 토론을 돕고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 현안 및 권역별 주요 정책사업, 도시계획, 주요통계, 해외사례 등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자문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사전 제작한 자료집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토론 참석자들에게 미리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행정정보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즉흥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논의할 의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기초 지자체가 대규모 원탁회의를 시도한다는 것부터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을 기획하고 추진하기까지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토론이 얼마나 의미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원탁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토론장을 찾아주었고, 참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시흥시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미래 시흥100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보고 설계하기 위해 시흥시는 3회 연속 300인 토론을 시도했고, 장장 3개월에 걸친 대장정은 그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한 다음 단계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화워크숍’으로 이어졌다. 심화워크숍은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된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5개의 팀을 구성, 전문가 강연, 학습과 팀별 토론을 거쳐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8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며, 시흥시의 미래 100년 비전을 수립하는 중요한 나침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제 선정에서부터 토론을 통한 결과 도출까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원탁회의는 미래 시흥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민의를 결집할 수 있었던 소통창구이자 희망의 현장이었으며, 이 모든 성과는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민 100여 명이 함께한 원탁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흥시민 원탁회의 현장

“여러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좋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으니 앞으로 시흥이 더 좋아질 거라 기대됩니다”  
 “이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열렬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시흥100년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흥시민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더 간절히 생겼습니다”

— 시흥시민 원탁회의 참여 시민 인터뷰 中 —

## 공공데이터,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 가치가 두 배

우리 시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  
음식 맛은 어디가 최고인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콧노사~



## 전주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라북도 전주시 · 김수미

국내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주시는 시민에게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모바일 산업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접근하기 쉬운 지역 공공데이터를 오픈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전주시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방법은 오픈 API 형태이며, 오픈 API는 공공기관이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자가 다양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 관광도시로 자리 잡은 전주시는 2011년 민간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특화정보인 전주시내 음식점, 한옥마을 맛집, 공연행사, 문화체험정보, 문화공간 등 문화관광데이터를 1차로 개방하고, 2012년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시내버스 등 편의정보를 2차로 추가 개방한 데 이어 2013년 3차로 한옥숙박정보와 관광명소, 쇼핑센터, 문화유적을 개방하는 등 개방데이터의 주

### 전주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제가 상호 연계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도를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전주시는 관광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 덕진공원 - 건지산 · 가련산 - 소리문화전당 - 체련공원 - 동물원을 묶어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덕진공원 전통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이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포털(<http://data.jeonju.go.kr>)에 공연행사 데이터를 공개하고, 2012년에는 시내버스 정보를 '국가공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전주시 오픈 API 서비스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http://www.data.go.kr))에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 시내버스 정보는 전주시가 그간 개방한 공공데이터 중 가장 뚜렷한 활용사례가 되면서 많은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어 향후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되는 데이터이다.

※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 '전주버스' (개발자 이명훈, 이용자 20만 명, 일 조회 수 30만 건 이상)  
전주시는 매년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택된 시민의 우수 아이디어는 KT와 협업하여 전주여행에 필요한 정



전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사례 공모전

보를 제공하는 ‘식도락전주’ 모바일 앱으로 탄생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10,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다운로드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간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던 전주시는 좀 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커뮤니티 센터 운영사업을 착수했으며, 다음 세 가지 과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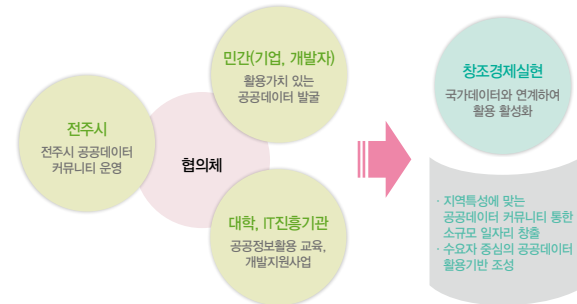
수행하고 있다. 우선, 민간과 대학, 지역 IT진흥기관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앞으로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전략을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2014년까지 시민에게 유용한 공공데이터 30여 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향후 최종 결과물을 국가데이터 포털과 연계하고 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모델을 선도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전주시 오픈 API 사이트에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고, 이용자와 협의회 간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전주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IT진흥기관이 서비스 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전주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협의회 발대식에서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관계자를 초청해 발대식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2014년부터 대폭 증가하게 될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에

## 전주시 공공데이터 커뮤니티센터 운영 목표



대비하여 전주시는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인프라를 보다 확충할 예정이다. 이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위해 데이터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전 직원 1인 1데이터 개방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분석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시내버스 모바일 앱 이용자가 20만 명이라면 서울시 시내버스 모바일 앱 이용자는 100배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차이는 그 수치뿐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할 주체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3.0 실천을 위한 지방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맞는 정책과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이러한 과제들을 ‘전주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하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더욱 빠르게 시민에게 확산하고, 타 지자체로 파급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

행복도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평균 만족도는 100점 기준 48.87점?

제주도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없앨 수는 없을까?

고민을 거듭한 결과 짜잔~ 도민행복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 도민행복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 강민형

2006년 7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체제를 출범했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부여,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의 권한 이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 차별화된 제도들을 시행할 수 있었고, 고용률 전국 최고수준 유지,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달성 등 눈에 띄는 많은 성과도 이뤘다.

2013년 1월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경제적 행복감 조사결과에서 제주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자료뿐만 아니라 유사한 여러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교육지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한 비교적 '객관적인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도민이 이런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한 게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여전히 던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13



년 4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주관적 행복도 조사결과에서 제주도민의 평균 만족도는 100점 기준 48.87점을 나타내 행복도 수준은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민행복위원회는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물론 도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도 민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거나 행정의 관점에서 추진되던 시책들이었다. ‘도민을 위한 민생시책이 아닌 도민이 원하는 민생시책을 추진하자’, ‘제주도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줄 민생시책을 개발하자’는 것이 바로 도민행복위원회의 구성취지이다.

2013년 상반기에 시책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 시책들이 대부분이라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이른 감도 있지만, 시행 중인 시책들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취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듯하다. 아랫글은 대정읍 가파리(제주도 본섬에서 남쪽에 위치한 250여 명이 사는 조그만 섬) 이장님이 도민행복위원회를 통해 실현된 민생시책 중 하나인 ‘찾아가는 도서지역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우리도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본 후

어제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고 서귀포 종합복지관에서 실행하는 도서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가파도에서 열렸다. 가파도 개국 이래 가장 큰 노인들을 위한 행사였다. 문화생활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섬지역의 노인들은 종일 미소가 입가에 가득했고 특히 당신들이 좋아하는 민요와 트로트가요, 무용 등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마을 대표로서 뿌듯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수지침,



도민행복위원회 전체회의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봉사팀에서 찌는듯한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험한 전기를 교체하고 수리해주었다. 행사준비 과정에 서귀포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한다면 획기적인 도민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며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어져 더불어 사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관협회, 특히 행사를 진행하신 서귀포복지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바쁘신데도 가파도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을 위로해주신 도 여성복지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민행복위원회는 10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했는데, 102명 중에는 학계, 언론계 종사자부터 현장종사자, 가정주부까지 망라하여 위촉함으로써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과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6개 분과

24개 소위원회로 구분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전체회의로 이어지는 운영·진단 체계이다.

먼저 소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되고, 제주의 민생문제 발굴, 도민의견 검토, 제주형 민생시책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대표위원 4~6명으로 구성되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보완책 마련, 분과위원회 소관 시책들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회의는 이름 그대로 모든 위원이 모인 회의체이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시책들 간의 우선순위나 채택여부, 시행시기(단기, 중기, 장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체계도



도민행복위원회는 이런 체계 속에서 4개월간 총 91회의 시책개발 회의를 개최했다. 물론 공식적인 회의였고 소위원회별로 이뤄진 수많은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획총괄분과에서는 펜션을 빌려 12시

간 동안의 열띤 토론을 벌인 사례도 있었을 만큼 민생시책에 대한 위원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도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원들이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조사하고 개발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대폭 지원했다.

1월부터 5개월간 전통시장, 복지시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사업체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직접 면담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면담,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무제한, 제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 타 지역 사례 조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민생문제를 파악하고, 파악 즉시 소위원회로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개월간 이렇게 해서 파악한 제주의 민생문제 사례가 1,741건이었고, 여기에 각 위원의 경험과 지식이 더해져 제주에 맞는 민생시책을 개발하고 15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도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시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확정된 민생시책들은 도민들이 의견을 내고, 도민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것이니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란 말로 시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하반기 민생시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99% 가까이를 반영하여 민생시책에 힘을 실었다.

이 중에서 제도개선이나 예산수반 없이 행정 내부의 결정으로 시행 가능한 18개 시책은 전체 회의 결정을 거쳐 2013년 5월부터 시작했고, 66개 시책은 2013년 하반기에, 66개 시책은 2014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자전거 바퀴처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또 일회성 쇼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시정 구현,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전시는 당신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나가고 싶습니다.



##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대전광역시 · 김수현

얼마 전까지 여러 차례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겠다고 욕심을 부리던 딸아이가 아직은 어설피지만, 그래도 넘어질 듯하면서도 곧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다.

저녁노을이 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세상만사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에 대한 참여 요구가 날로 거세지는 ‘민(民)’과 이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官)’의 관계도 자전거의 두 바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뒤에서 잡아준 것처럼 시작은 미미하지만, 익숙해지면 두 바퀴를 밟을수록 속도를 내듯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관이 서로 협력한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관공서에 시민들이 찾아가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관공서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불균형적인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열린 행정’, ‘투명한 정부’를 외쳐 봐야 시민들의 외면과 무관심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자전거가 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데, 이때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민(民)’과 ‘관(官)’ 역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관은 문턱을 낮춰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은 시정에 대해 대안없이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민·관의 소모전은 지역 간의 갈등 및 예산 낭비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 전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민관이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존의 ‘관(官)’ 주도 토론회는 자발적 참여 결여와 그로 인한 참여자 만족도 저하, 편향적인 의견 도출 등이 항상 문제로 지적됐다. 그래서 시민(단체)에게 소위 말하는 키(Key)를 맡겼다. 주제 선정부터 토론자 섭외까지 토론회 개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기고, 시는 예산, 장소 섭외 및 자치구 홍보 등의 서포터즈(Supporters) 역할을 전담했다.

토론회 주제는 시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시민단체(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정의 각 분야 주요 현안 중 시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이나 시의성이 있는 주제로 선정했다. 기존의 토론회에서 참여만 하던 시민단체가 이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토론회 장소 등을 섭외하고, 토론회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토론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성공적인 토론회 개최를 위해 시는 홍보에 중점을 뒀다. 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 토론회 개최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전광판 또는 시내버스 내 LED 광고 등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를 전개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토론회 일정을 안내했다. 시민단체의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도 시민들에게 토론회 개최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작지만 소중한 노력의 산물로 2011년 3월에 제1회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지역 현안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시민(단체)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처음 만난 시민단체(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토론회를 정례화하기 위해 세부 일정을 논의할 때만 하더라도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었다. 하지만 2011



토론회 전경



‘청소년이 행복한 정책 만들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친 후



년 3월 처음으로 개최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아홉 번째 토론회를 맞게 된 지금에 와서 그 성과를 따져 본다면 괄목할 만하다.

첫 번째로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무형의 자산) 즉, 대전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목표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전 공동체 형성이 꼭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성과는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시민토론회는 2013년 10월 말 기준 총 18회 개최했고, 74건의 소중한 의견이 제안돼 시정에 반영됐다. 기존 전문가 위주의 의견 개진으로 진행된 토론회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토론회 개최 시기

를 토요일로 조정하고, 현장 응답기를 이용한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 개진을 가능하게 한 점은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주민참여 시정구현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초기 토론회의 실효성을 확신하지 않고 일회성 쇼(Show)로 인식했던 시민(단체)의 태도는 회를 거듭할수록 적극적으로 변했고, 시도 제안된 의견을 단순하게 해당 부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제안 시책 관리카드제를 도입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 단·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펌프의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마중물'을 기억할 것이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통해 지하에 있던 물이 힘차게 뿜어져 나오듯 우리 시에서도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와 같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통해 잠재된 시민 역량을 끌어올려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이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주민참여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단체)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 광주공동체 토대를 위한 열린 소통의 장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평범한 주부라서 망설이셨나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는데,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셨나요?  
당신의 시각에서 입안하고, 당신이 집행하는  
'시민아고라 500플러스'를 소개합니다.



## 시민아고라500플러스

광주광역시 · 유방실

광주 무등산 자락의 운림동에 사는 미주맘은 TV를 보다가 인근 문화동 '시화 문화마을'이 큰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부럽기도 했지만 아쉽기도 했다. 현재 미주맘이 사는 운림동은 어느 면을 보더라도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취 있는 골목길인 흙담길이 있고, 마을구조도 그렇고, 옛 마을 모습에서 빠져서는 안 될 큰 정자나무가 마을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운림동도 분명 문화마을의 주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왜 문화동은 했는데 운림동은 못했지’ 하는 아쉬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미용실에서 만난 또래 맘들과 대화를 해보니 대부분 공감했고, 운림동도 문화마을로 만들어보고자 시청 홈페이지를 찾았다. 인적사항과 의도는 기재했지만, 주어진 서식대로 빈칸을 채우자니 너무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친한



서준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몇십 분이 지난 후 서준맘도 힘들어서 못하겠단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제안은 단체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미주맘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과 같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자기 동네 가꾸기'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단 말인가! 어렵게 정해진 서식대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머릿속에 그린대로 제안하고 그 제안을 누군가 검토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하고, 자신의 마을을 더 살기 좋고 정감있는 마을로 가꾸는 일에 참여해보고 싶었다.

며칠 고심하다가 시청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시민아이디어 접수창구'가 개설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제안해놓고 그 제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담당 부서에 전화해봤더니 매년 5월까지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들을 사전심사위원들이 검토한 후 시민 500명이 참여한 원탁회의에서 채택한다고 했다. 채택된 제안 중 광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운림동처럼 특정마을에 한정된 사업일 경우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미주맘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비록 통장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마을 가꾸기에 내 의견을 보태고 참여할 수 있다는 만족감에서 오는 미소였다.

1995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곧 민주주의'의 토대라 보고 지방자치

## 공통의제토론회



기조발제



정부3.0 주민설명회

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각계각층과의 소통, 협력 없이는 지방발전이 불가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소통이야말로 풀뿌리 자치공동체의 기본요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관협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광주시는 2001년부터 행정과 시민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정현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민관협치의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는데 바로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이다.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은 두 번의 큰 진화과정을 거쳤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민관이 1박 2일 동안 함께하면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환경도시 조성방안' 등 시정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시기였다. 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분야별(6~8개 분과)로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시책화하는 실천력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민관협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정책워크숍에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책제안이 일부 시민단체에만 한정되고,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정책제안을 심사함에 따라 시민과 직접 소통하지 못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형 정책의제가 부족했다. 광주시가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동



반성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 해결과정 참여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행정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고 이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는데 갈등의 요소가 된다. 공공정책 추진 시 갈등과 투쟁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를 봉합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정보공유와 진솔한 대화를 통한 공공정책 생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 개개인의 참여를 우선시 하고, 이를 위해서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광주시는 민관협치의 근간을 ‘시민의 직접 참여’로 보고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시민아고라500플러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아고라 500플러스’는 일반 시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정책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500명이 심사, 채택하여 직접 시민의 시각에서 입안하고 행정서비스의 한계로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면에서 ‘시민아고라500’은 이제까지 실행되지 않았던 정책의제 발굴분야에서 시민 500명이 모인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정책이며 시민의 정책 참여 유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아고라500’ 추진에

따른 준비사항이 만만치 않다. 우선 시민 500명을 추출할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참여 시민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준과 직업군 등 분야별 균등한 참여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정책실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바 있지만 이를 공공정책과 연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가 없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민아고라500’의 성공은 ‘정책실현 크라우드펀딩’의 성공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아고라500’처럼 ‘정책실현 크라우드펀딩’도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SNS,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기금모금 등은 자칫 홍보만 하고 참여자의 수가 적어 실행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다행히 마을기업, 마을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한다면 공적재원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시민아고라500’ 추진과 ‘정책실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사업 시작 전에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이 거버넌스 시대의 대표적인 모델이지만 다시 한 번 자기 진화를 통해 도약해야 할 때이다. ‘시민아고라500플러스’를 통해 소통의 광장으로 시민들을 불러모아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상호존중, 합의와 대동의 정신을 기반으로 우리가 꿈꾸는 광주공동체의 토대를 만들 것이다. ‘시민아고라500플러스’가 광주공동체 부활을 이룰 희망의 섬이 되길 기대한다.

##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더하다

스스로 건설공사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과천시에 거주하세요? 직장이 과천시에 있는 분이라도 오케이~

당신을 과천시 시민예비준공검사원으로 임명합니다.



##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

경기도 과천시 · 이정호

과천시의 각종 기반시설은 1980년대 정부과천청사 입주와 함께 갖춰졌기 때문에 30여 년이 지난 현재 상당히 낡았다. 따라서 시내 곳곳에서 교체 또는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부분의 공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 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다 공사감독자인 기술직공무원의 인사 이동까지 빈번해짐에 따라 경험부족, 인수인계의 미흡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매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평가받았음에도 높은 집값 등의 이유로 주민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시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제도의 도입이 요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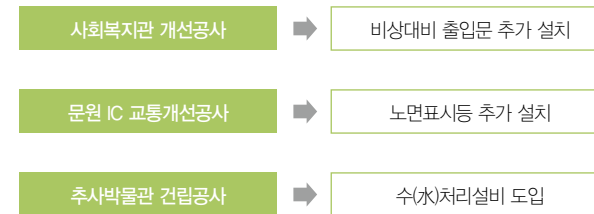
2003년 민선 3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세상’을 위한 첫 시도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건설공사 분야 전문가)과 상근직장을 둔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여 거주지 동(洞)의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민예비준공감사원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시행 초기에는 3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와 민원소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추진했으나, 부실공사는 설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2005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의 설계용역에도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공정에 걸쳐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확대했다. 도입 초창기에는 감사위원들의 의욕이 지나쳐 공사현장에서 잦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시민감사위원들이 시정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라 오해하는 일부 감독공무원의 왜곡된 시선으로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들과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로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은 물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46명(건축20, 토목6, 전기6, 건설3, 조정3, 기계2, 기타6)의 감사위원들이 분야별로 연평균 52개 공사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감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개선공사 시 장애인과 노약자가 주 이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이 하나임을 지적하여 비상대비용 출입문을 추가 설치했으며, 문원IC 교통개선공사와 관련해서는 우회도로의 사고위험이 많을 수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면표시등 보완

사항을 제시·반영한 사례가 있다. 특히, 2013년 6월에 완공된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는 당초 지하에서 유입되는 하루 8톤의 지하수를 그냥 방류하게 되어 있었으나, 감사원이 ‘지하수 및 빗물 저류조 재활용 방안’을 건의하여 수처리설비를 2천5백만 원에 도입하여 청소나 화장실 등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비함으로써 자원절약과 비용절감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시민예비감사위원 추가설치 의견 → 설계반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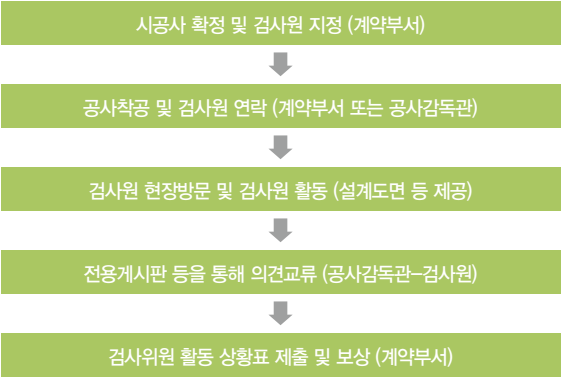
또한 부실하게 시공된 공사를 발견하여 재시공한 사례도 있었다. 관문동 수해 복구공사의 빗물받이 집수정과 청계산 배드민턴장 조성공사의 바닥 기초공사가 당초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아 전면 재시공 및 보완시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곧 시민예비준공감사원의 폭넓은 전문성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향상과 주민편익을 우선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감사원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우선, 감사원 전원을 전문가로 위촉하여 내적으로는 효율성을 기하고, 외적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감사원을 단기 위촉하여 별도의 이익집단 형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다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감사원이 거주지 동(洞)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활동함으로써 공사로 인

한 주민 불편사항을 바로 청취할 수 있었으며, 감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통하도록 하여 감사원과 시공사 간의 다툼 및 공사로 인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했고, 감독공무원을 통해 제시된 시민예비준공검사원의 의견은 시공에 적극 반영하도록 시공사와 협의함으로써 감사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 운영 흐름도



시정의 책임 있는 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열어 참여 시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이 고취되었음은 물론, 분야별 시민전문가의 활동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며,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주민과 市가 함께 추진함에 따라 일찌감치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행정을 구현· 정착시켜 소통하며 일 잘하는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펼치는 등 행정 이미지 쇄신을 통해 내 고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예산의 전 과정을 부서 간 공유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잘 집행되고 있을까?
-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을까?
- 인터넷을 통한 논산시의 예산집행현황 대국민 공개가 2014년 시작됩니다.



## 유리알처럼 투명한 예산집행관리시스템

충청남도 논산시 · 박호연

흔히들 예산은 투쟁이라고 이야기한다.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예산이 적기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한 시민들은 예산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지난 2006년부터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예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지 않은 시민들이 예산서만으로 시 재정운동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예산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논산시는 정부3.0의 핵심과제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과 ‘디지털 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재정활용 2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과 공유하는 1단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현재는 시민과 소통하는 2단계(맞춤형 시민서비스) 계획을 추진 중이다.

통합재정활용 1단계 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시 재정운영의 전체 상황을 예산 분석이 용이하도록 공개하여 직원 모두가 재정운영현황을 열람하고 공유하여 투쟁처럼 여기는 부서 간 ‘예산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다. 재정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각종 보고서와 예산집행실적 향상을 위한 분석체계 간소화로 업무의 집중력을 높여 시 전체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통합재정활용 2단계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13년에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진행상황 공개를 통한 참여예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고자 논산시는 2012년 e-호조 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논산시에서 이미 운영 중인 새울행정시스템(시·군·구 업무지원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은 신규 서버를 통해 기존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켜 서버의 원활한 운영환경을 지원하고 기 운영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구축했다. 그 결과 논산시에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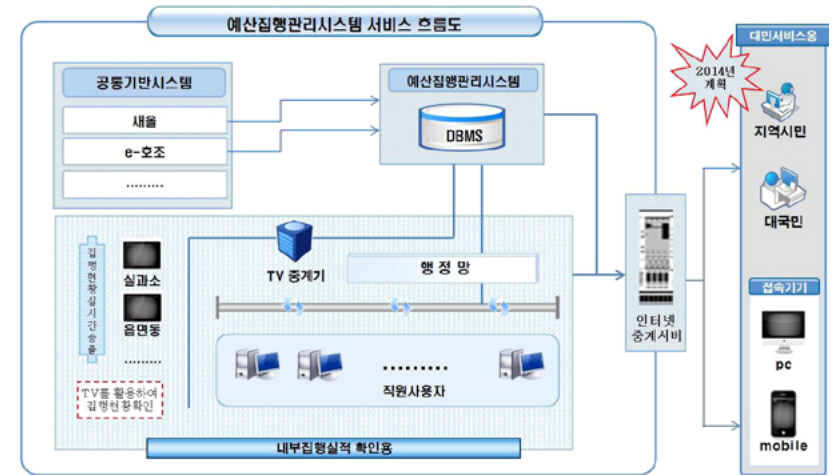


발한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각 부서 직원과 부서장 등 매일 1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은 기존 데이터를 사용자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예산구조와 회계구조의 접목을 통한 전자동화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자료 입력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산집행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2013년 상반기 균형집행 실적이 2012년도 대비 10% 이상 향상됐다.

또한 부서장의 시스템 활용도 또한 높아져 해당 부서장이 부진사업 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최고 관리자부터 직원까지 공유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실제로 논산시에서는 2013년 2회 추경 시 부진사업 5개를 시범 선정하여 약 4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은 해당 부서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직원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 전체 예산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예산부서를 비롯한 각 부서의 업무집중도 향상으로 이어져 조직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 논산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을 통해 2014년 인터넷을 통한 예산집행현황 대국민 공개를 준비 중이다. 인터넷 공개를 통하여 투명한 재정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립에서 집행내역까지 인



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논산시가 구축한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은 기존 새물행정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다른 지자체로 손쉽게 확산할 수 있으며, 시는 구축사례를 공개함으로써 타 지자체가 초기 구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에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5개 지자체가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국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각 지자체 행정으로 확산될 것이라 기대된다.

## 파이시티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궁금하세요?

복지, 일자리, 교통, 교육...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찾아주세요.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 시정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

서울특별시 · 김동현

그동안 행정정보는 공무원이 독점하고 중요한 정책은 비공개 등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왔으나, 요즘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해 우선 정례간부회의 등 4개 주요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121개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등 주요 행정정보를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했다. 연구용역결과, 주요사업백서, 감사평가결과 등 비전자문서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위주로 행정정보공표목록을 2012년 64종에서 2013년 327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민 관심사업인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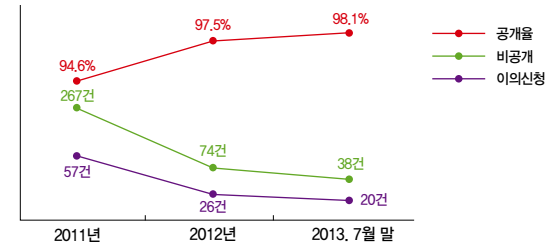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이시티, 파인트리, 서해벚길,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우면산 산사태, 지하철 9호선(1단계) 건설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서 1만 2천여 쪽에 달하는 원문을 공개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 문서 5만 건은 물론,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약 300건의 신규 전자결재문서를 정보소통광장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결재문서 정보는 업무분류에 따라 15개 분야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정보 또한 내부 행정시스템 자동수집, 수동등록 등 모든 수집정보를 업무분류에 따라 16개 분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내부 행정시스템별로 각각 생산된 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전면공개하고 있다.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결재문서, 예산정보, 재정정보, 용역결과, 통계정보 등 문서는 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198,915건이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53,865건이 등록됐다.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하고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있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해오던 서면심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전원 참석심의제로 개선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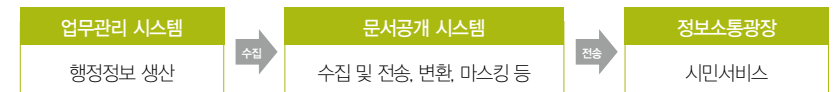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율 변화



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어도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직권심의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외부전문위원 보장 및 정보공개심의주심제도 도입 등 정보공개심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율이 2011년 94.6%에서 2013년 98.1%로 향상됐다. 또한 사전심의 강화를 위해 비공개 결정 시 결정권을 당초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했고, 비공개 문서 생산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공개 전용 사이트인 정보소통광장은 정보를 모아 수동으로 등록하여 제공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용시민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하여 2013년 10월 28일 오픈했다. 결재 완료된 문서는 정보소통광장으로 자동 전송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문서공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다.

##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체계





다양한 기기의 최적화 서비스

서비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관리 등 11개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되는 공개대상 정보는 모두 자동 공개되고 있으며, 댓글로 실시간 의견도 달 수 있는데, 이 중 문의, 제안, 민원 등은 2014년 1월부터 민원제안통합시스템과 연계해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전달, 답변은 물론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PC 모니터 화면에 맞춰졌던 정보소통광장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와이드 TV 등 다양한 크기의 기기에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했고, 원본과 PDF 파일을 동시에 제공하여 공개정보 활용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공개문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관되는 문서 목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 못한 부분공개 문서도 비공개사항을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자치구 및 산하기관 정보공개도 서울시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직원 마인드 내재화를 위해 직원교육 강화

및 공개 실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정보공개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알 수 없었으나, 각종 보고서,

회의록 등을 통해 중요정책 수립과정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시민과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공유된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신사의 야간통화 통계 데이터와 택시 승하차 정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개발한 ‘심야버스 노선’, 서울·인천·경기도 버스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도착 시각을 알 수 있도록 ‘서울버스 앱’ 개발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행정정보를 전면공개하여 공유, 소통, 참여,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투명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

## 국민일보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010면 사회

### 서울시 오늘부터 결재 문서 등 5만건 공개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29일부터 올해 시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 문서 5만건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약 300건의 신규 전자결재문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문서들은 PDF파일이나 원문파일로 제공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반응형 웹기술을 도입해 PC 모니터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와이드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다.

## 잠자는 행정정보를 손안의 보물지도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문자가 아닌 지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앞으로는 내가 알고 싶은 행정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로 서비스 되네요.  
보물지도 하나가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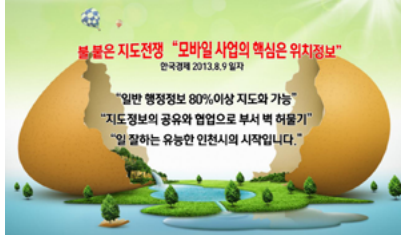
##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포털 서비스

인천광역시 · 조기웅

인천시는 그동안 공무원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에서 잠자던 건강, 육아, 주택, 취업정보 등 행정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정보들을 지도 서비스로 만들어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주소정보가 있는 일반 행정정보를 이용해 마우스 드래그 한 번으로 쉽게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개인, 업무, 부서별로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협업하여 업무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맞춤형 지도서비스를 시작한다.

한 언론매체는 특집기사(2013년 8월 9일 자)를 통해 구글, 애플, 네이버, 다음 등 IT 회사들 간에 불붙은 지도전쟁과 IT 산업의 미래는 위치정보라고 강조하고 지도정보의 중요성을 비중 있게 다뤘다. 2013년 6월 구글은 11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들여 또 다른 지도업체를 인수하였고, 애플은 아이폰5를 내놓으면서 기존에 서비스하던 구글 지도를 버리고 자체 지도를 구축하였다. 네이버 또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도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다음은 3차원





미래 산업의 핵심은 위치정보



위치정보를 이용한 편리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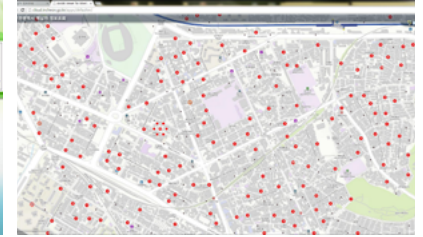
지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지도전쟁이 불붙었다고 할 만하다.

민간에서 위치정보를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인천시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정보의 80% 이상이 위치정보와 관련 있다고 보고 기존 텍스트 형태의 일반 행정정보를 누구나 쉽게 지도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GIS 플랫폼을 도입했다. 인천시는 클라우드 GIS포털을 통해 텍스트 형태의 일반 행정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개방과 공유, 협업을 통해 부서 벽허물기는 물론 민간의 지도서비스와 차별화하였다. 이것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까지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던 것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도록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체계다.

지금까지 폐쇄된 정보를 이용해 일부 전문가가 운영하던 지도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접근성 또한 일반화될 것이다. 공개·공유·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수행에 미스매치를 해소하면서 시정을 더 과학적이고 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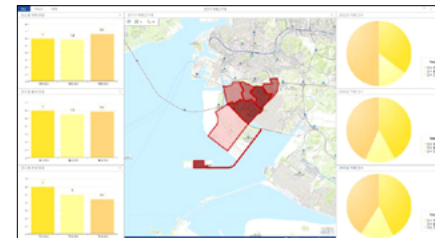
시민서비스를 위한 혁신 체계



협업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자 지도

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주목하는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를 이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행정의 혁신을 이끌 것이다.

살면서 정말 궁금했던 부동산 투자정보나 교육과 취업 등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행정 내부의 유용한 정보들이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포털에 모바일 지도서비스나 내비게이션, 버스·지하철 앱 등의 지도서비스에 인천시의 위치정보가 더해지면 시민들에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보물지도가 되어 세상에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연수구 부동산 거래정보 통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모바일서비스